



2018년 5월 5일 토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근교 포르 베르가타 대학에서 열린 ‘새로운 신앙여정 운동’ 또는 ‘초대 교회 공동체 운동’으로 불리는 네오까떼메나도 설립 5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하였다. 135개국 약 15만 명의 신자들이 함께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을 비롯한 270여 명의 신자가 참가하였다. ‘네오까떼메나도 길’은 단계적 교리 교수를 통하여 신앙성장을 통한 새로운 복음화와 새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것이다.

로마에 방문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5월 3일 목요일 비테르보 절벽의 성모(Maria Santissima ‘ad Rupes’) 성지를 방문하여 절벽의 성모님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의 전구를 청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였다.



비테르보 절벽의 성모 성지 방문

5월 6일 부활 제6주일 염수정 추기경은 로마 한인 신학원에 위치한 로마 한인 본당(주임: 정의철 신부)에서 교중미사를 집전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탈리아인 에밀리오 도나토니(Emilio Donatoni)의 가족들도 미사를 함께 드렸다. 1925년생인 에밀리오 도

나토니는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을 그리워하며 자주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염 추기경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가족들에게 강복을 주었다.



한국전 참전용사 에밀리오 도나토니의 가족들과 함께

미사 후에는 ‘평화의 모후’(Regina Pacis) 성모상과 목자의 길(Via Pastoris) 축복식이 있었다. 이 성모상은 비테르보의 발렌타노 지역에 있던 한국 수도 공동체인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회 이탈리아 분원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2007년 한국의 한 신자가 봉헌하였는데, 여러 어려움으로 2015년 분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로마 한인신학원에 맡겨졌다. 그동안 이 성모상을 모실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모후’(Regina Pacis)라는 호칭을 성모님께 새로 봉헌하고 한인신학원 내에 새로 조성된 목자의 길에 모시게 되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의 도움이 간절한 이 시기에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의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평화의 모후 성모상 축복식